



2005년도 상반기 PET 용기 시장 현황

Market Trend of PET Bottle

김 태 길 / (사)한국PET용기협회 전무이사

I. 서론

2005년초부터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PET 성형업계는 최근 한달째 주말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수요 뿐만 아니라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기대수요마저 일어나지 않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판매상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음료는 주로 중산층과 젊은층이 주소비층임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내수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마스크 등에 따르면 식음료용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리병, 캔, PET 용기 등 모든 포장재의 판매가 극도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음료전체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본 고에서는 PET용기 수급 및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업계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I. PET 용기 수급현황

PET 용기는 그 어떤 포장재보다도 품질면에서, 위생적인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에 힘입어 그동안 꾸준히 수요가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작년만 하더라도 PET 용기의 전체 생산량은 연간 32억개 정도로서 전년대비 약 14%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금년으로 들어와서 음료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상반기중 PET 용기의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약 1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생수용기는 전년에 비하여 그다지 감소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생수는 일반가정에서 음용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생수업계는 중소생수업체와 대형생수업체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생수업체 물량은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농심의 제주삼다수, 롯데칠성의 아이시스 등 대형생수업체들은 시장

참여로 양적 팽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용기는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장유병, 주류병, 세제류병 등 물량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품종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되더라도 소폭으로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ET 용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료용기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판매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하여 약 10~15% 정도의 판매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 PET 용기 시장 현황

이처럼 우리업계는 판매의 어려움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원료가격마저 연말년초의 급등세는 약간 멈추었지만 인상된 고가 상태에서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부담이 매우 큰 곤혹스러운 시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으레 판매가 부진하면 원료가격은 약세가 유지되곤 하였으나 급년도는 판매가 어려운데도 원료가격마저 강세가 지속되는 기이한 현상이 채산성 압박으로 이어져 업계의 생존권 위기까지 불러올수도 있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PET 성형업계는 높은 원자재값이 지속되고 있지만 납품가격은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채 판매부진으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하여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기도 하다.

PET 용기업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수요업체와 함께 신제품개발 노

력을 어느때 보다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즉 소형 맥주병 개발, 웰빙열풍에 따른 기능성 음료의 용기 디자인에 대한 다양화, 유제품 용기의 개발 등이 그 좋은 예이다.

II. 결론

앞으로 PET 용기업계는 원료가격의 향배를 예의주시 하면서 동종업체간의 출혈판매를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공급체계를 존중하면서 식음료업체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터전을 이번 기회에 확고히 확립시켜 나가야할 때인것 같다.

부디 하반기에는 모든 경기가 되살아나고 음료수 소비도 증가되어서 꾀통같은 공장에서 혹은 거래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PET 용기 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신바람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